

프레임 의미론적 접근을 통한 ‘弄’의 의미향 분석

이하영*

【목 차】

1. 들어가며
2. 결합하는 문장성분에 따른 ‘弄’의 의미향 분석
3. ‘弄’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
 - 1) ‘弄’의 원형의미
 - 2)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弄’의 의미 확장
4. 나오면서

【초록】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대표적인 형식동사(dummy verb) 중 하나인 ‘弄’이 문장에서 결합하는 성분에 따라 상이한 의미향을 분석하고 각 의미향이 발생하게 된 연유를 프레임 의미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弄’은 대다수 동사로 쓰이며 ‘보어’, ‘목적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룬다. 정도보어와 결합할 때 문장에서 사동의 의미가 발현되어 보어 뒤에 따르는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결과보어와 결합할 때는 선행한 동사를 대체하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쓰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로 작용하는데, 이때 ‘弄’에는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바로 목적어를 이끌 때는 ‘획득’, ‘제작’, ‘다루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 같은 다양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弄’의 원형인 손으로 옥을 다루는 형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프레임 의미론의 관점에서 윤곽부여를 통해 초점이 손에 부여될 때와 옥에 부여될 때 서로 다른 의미향이 생성될 수 있다.

【키워드】 弄, 형식동사, 의미향, 사동, 프레임 의미론

* 이하영. 제주대학교 박사 (borasum@naver.com).

1. 들어가며

현대 중국어에서 ‘弄’의 사전적 의미는 ‘하다’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한국어 ‘하다’에 대응하는 단어는 ‘弄’ 외에도 ‘做’, ‘作’, ‘办’, ‘干’, ‘搞’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은 실제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이지만 사전적 의미가 유사하거나 문장에서 한국어 ‘하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단어들이다.

‘弄’은 ‘做’, ‘作’, ‘办’, ‘干’, ‘搞’와 함께 ‘搞’류 동사로 분류되어 주로 연구된다. 조은경은 ‘搞’를 포함한 ‘弄’, ‘做’, ‘办’, ‘干’을 ‘搞’류 동사로 분류하고 어휘, 통사, 의미, 화용론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弄’은 다른 ‘搞’류 동사와 달리 기본 의미에 ‘玩弄’, ‘戏弄’이라는 의미와 ‘손을 사용하여 만지작거리거나 가지고 노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¹⁾ 텡페이(滕飞)는 ‘弄’의 의미항을 분석하고 결합하는 문장 성분에 따른 ‘弄’의 의미를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弄’이 형식동사로 일반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²⁾ 옌신신(颜欣欣)은 형식동사 ‘做’, ‘搞’, ‘弄’, ‘干’의 의미, 통사, 화용 세 관점에서 쓰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做’, ‘搞’가 명사성, 동사성 목적어를 두루 취하는 반면 ‘弄’, ‘干’은 동사성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통사적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对外汉语 교재에 대한 ‘做’, ‘搞’, ‘弄’, ‘干’의 쓰임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재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做’로 모든 수준의 교재에 균등하게 등장한 반면 ‘弄’, ‘干’, ‘搞’는 회화 교재에 많이 활용되는 글자이다.³⁾ 그러나 国家标准 GB2312-80 《信息交换使用汉字编码字符集—基本集》에 따르면 ‘弄’은 사용 빈도가 923위로 상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HSK 작문시험 자료를 통한 말뭉치 조사 결과 유학생들이 ‘弄’을 사용한 빈도는 146건으로 높지 않았으며, 그 중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30.13%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단어 ‘弄’ 활용능력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⁴⁾ 특히나 ‘弄’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른 동사들과 달리 결과보어와 함께 쓰여 처음 교재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弄’ 자체의 의미가 매우 희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 활용 측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1) 조은경, 「現代 中國語 ‘搞’類 動詞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p.52.

2) 滕飞, 「泛义动词 ‘弄’的多角度考察」, 吉林省 延边朝鲜族自治州 延边大学 硕士论文, 2009.

3) 颜欣欣, 「对外汉语教学中的虚义动词教学研究」, 吉林大学 硕士论文, 2014, p.23.

4) 孔雪, 「泛义动词‘弄’的教学策略」, 『文化产业』, 第11期, 山西出版集团, 2021, p.48.

‘弄’은 현대중국어에서 대표적인 형식동사 중 하나인데 형식동사란 동사 자체의 구체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문장에서 통사적, 수사적 역할을 하는 동사를 가리킨다. 형식동사는 의미와 통사의 특징에 따라 加以, 给以, 予以 에 해당하는 DVa와 进行, 作 에 해당하는 DVb로 구분된다.⁵⁾ ‘弄’은 두 형식동사의 유형 중 DVb에 해당하며 주로 뒤에 목적어, 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오옌빈(刁晏斌)에 따르면 ‘弄’이 보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또 다른 DVb류 단어인 ‘干’, ‘搞’, ‘做’, ‘作’, ‘进行’, ‘从事’가 보어와 결합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전체의 8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⁶⁾ 또한 홍연옥은 ‘弄’이 보어와 결합하는 경우에 결과보어와 결합하는 비중이 73%로 다른 보어와의 결합 횟수와 비교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⁷⁾ 쿵쉐(孔雪)는 ‘弄’이 결과보어와 방향보어와 쓰일 경우에 한정해서 분석하였으며⁸⁾, 추옌(褚艳)은 ‘弄’이 결과보어와 종종 함께 쓰이며 그 다음 많이 쓰이는 보어는 방향보어라고 밝혔고 정도보어⁹⁾와의 쓰임은 언급하지 않았다.¹⁰⁾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1001건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문장에서 ‘弄’의 쓰임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弄’은 97.9%가 동사로 쓰였으며 명사로 쓰인 경우는 2%에 불과했다. 동사로 쓰인 경우 74.7%가 보어와 함께 쓰였으며 이 중 정도보어와 결합하는 비율은 44.3%이며 결과보어와 결합하는 비율은 34.1%였다.¹¹⁾ 정도보어와의 결합률과 결과보어와의 결합률 차이가 10%포인트 정도로 현저한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5) 胡裕樹·範曉 主編, 김현철·김선아 외 共譯, 『현대 중국어 동사연구』, 學古房, 2004, p.401.

6) 刁晏斌, 「虛义动词论」, 南开大学 博士学位论文, 2004, p.21.

7) 홍연옥, 「중국어 대동사 ‘弄’의 의미기능 연구 - 대동사 ‘搞’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68집, 한국중국어학회, 2017, p.274.

8) 孔雪, 「泛义动词‘弄’的教学策略」, 『文化产业』, 第11期, 山西出版集团, 2021.

9) 통사적으로 ‘V+得+C’ 구조를 정도보어로 분류하며 ‘得’ 뒤에 따르는 보어의 의미에 따라 ‘정도보어’와 ‘상태보어(혹은 정태보어)’로 세분화기도 한다. 하지만 정도와 상태의 개념 모호성으로 인해 그 분류가 용이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热得出汗(땀나게 덥다)”은 “热到了出汗的程度(더운 것이 땀이 날 정도에 이르렀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热到了出汗的状态(더운 것이 땀이 나는 상태에 이르렀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예문 출처: 北京大學中文系,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譯, 『현대중국어의 이해(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9, p.374.) 이에 본고에서는 ‘정도보어’와 ‘상태보어’를 세분하지 않고 ‘정도보어’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말뭉치 자료 분석 결과 ‘V+得+C’, ‘V+的+C’, ‘V+个+C’ 구조의 문장을 모두 ‘정도보어’로 분류했다.

10) 해당 연구가 周口方言에 한정하여 쓰인 논문이기는 하지만 연구에 쓰인 예문 분석 결과 현대중국어 ‘弄’의 의미와 쓰임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周口方言이라는 범위의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褚艳, 「周口方言中泛义动词‘弄’的用法分析」, 『周口师范学院学报』, 第32卷(第3期), 周口师范学院, 2015.)

11) 말뭉치 자료는 현대중국어에 한정하여 그 범위로 삼았으며, 978개 예문 중에 ‘弄’의 쓰임은 총 1008건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 예문에 인용된 『詩經』의 문장을 제외한 총 1001건의 쓰임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http://corpus.zhonghuayuwen.org/> [2022.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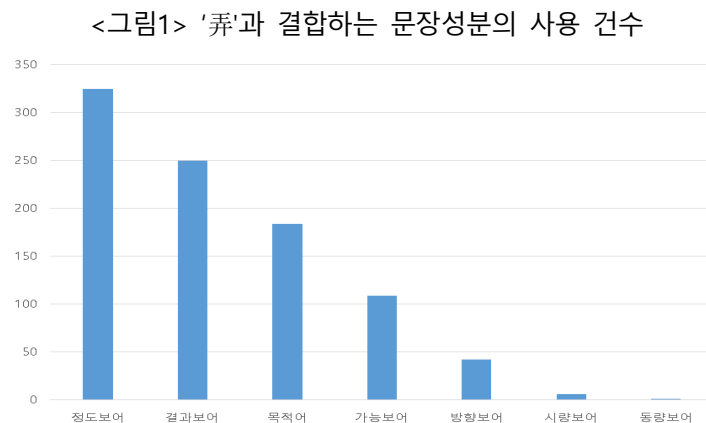
또한 ‘弄’의 쓰임 분석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弄’과 결합하는 보어의 종류를 1차 기준으로 삼았다. 보어가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1차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보어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그리고 보어 없이 목적어와 쓰인 경우는 ‘동목’구조로 분류했다.

기존 연구에서 ‘弄’과 정도보어와의 결합에 대한 언급보다 결과보어와의 결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도보어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쉽지 않은 글자이며, 기존 연구에서 ‘搞’류의 형식동사 중 하나로 연구되거나 단독으로 연구가 된 경우에도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는 다량의 말뭉치 자료 분석을 근거로 ‘弄’이 주로 결합하는 문장성분에 따른 ‘弄’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 의미가 원형의미에서 파생되는 과정을 프레임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결합하는 문장성분에 따른 ‘弄’의 의미향 분석

말뭉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弄’은 주로 동사로 쓰이며 문장이나 구절에서 기타 성분과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다음은 ‘弄’과 결합하는 문장성분 건수의 통계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¹²⁾



위 표를 통해 ‘弄’이 문장에서 가장 많이 결합하는 성분은 보어 중에서도 정도보어를 알 수 있다. 다음 세 문장은 모두 ‘弄’이 정도보어와 함께 쓰인 예이다.¹³⁾ 예문

12) 그래프는 ‘弄’이 문장이나 구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뒤에 보어 혹은 목적어를 이끄는 경우인 917건을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다. ‘弄’이 명사인 경우와 문장이나 구절에서에서 단순 서술어로 쓰인 것(예: 那别弄, 等干了./ 不知是怎么弄的)과 ‘弄’이 다른 글자와의 결합을 통해 이음절단어로 쓰인 경우(예: 还有一味羚羊鼻子最不好讨弄.)인 84건은 제외하였다.

13) ‘的’, ‘地’, ‘得’의 혼용 사례에 대해 연구로는 何和平, 江胜利, 田野, 娜布其 등이 있다. 何和平은

을 살펴보면 ‘弄’이 정도보어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a. 现在的立法者和政治学家似乎不曾把他们弄得清楚, 分得明白.

현재의 입법자와 정치가는 그들을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구분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 b. 弄的曹志道白跑了一趟腿, 连一根柴火毛, 也没捞到手.

曹志道を 헛걸음하게 하고 땀감 한 조각도 건지지 못했다.

- c. 不过, 就是老杨牺牲了, 也要把他的尸首捞回来, 把这事弄个水落石出.

하지만 양씨가 희생되더라도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得’字 구문의 사동표현은 ‘A+V得+B+C’의 형식을 이루는데, A와 B는 주로 명사성 성분이며, B와 C는 주술구를 이루어 C가 B를 설명하게 된다. ‘得’字 구문은 ‘得’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得’가 그 앞의 동사와 그 뒤의 주술구로 된 보어의 도움을 받아서 사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得’字 구문의 사동자 역시 [有情]의 의미자질을 지닌다.¹⁴⁾

‘得’字 구문의 사동표현 형식인 ‘A+V得+B+C’에서 ‘A’는 사동자에 해당하며 ‘B’는 피사동자에 해당한다. 문장에 따라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모두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2) a. 这样也会弄得大家发恐慌, 把运动闹糟.

이렇게 하면 모두를 당황시키고 일을 망칠 것이다.

- b. 但这里应该注意现身说法的人必须出于自愿, 不要发动诉苦运动, 以免弄得空气紧张, 形成斗争局面.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빌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야 분위기가

‘的’와 ‘得’가 혼용되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했다. ①既去掉了多余的脂肪, 又可以让自己面部立体饱满, 一举两得, 开心的(得)不得了. ②原来, 社区里都是一些高层住宅, 居民平常虽说是楼上楼下, 但是平时接触的(得)并不多, 更有很多居民更是素不相识. 예문에서 ‘不得了’, ‘并不多’는 각각 ‘开心’, ‘接触’의 보어로 ‘得’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何和平, 「浅析结构助词 ‘的’与‘地’, ‘得’的混用」,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34卷(第9期), 湖北广播电视大学, 2014, p.87.) 또한 唐宋 시기에는 현대 중국어의 ‘的’를 ‘底’로 사용했고 ‘地’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데 사용했으며 후에 모두 ‘的’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的’이 쓰임이 과도해 1951년 吕叔湘, 朱德熙를 중심으로 ‘的’, ‘地’, ‘得’을 구분하여 관형어 뒤에는 ‘的’, 부사어 뒤에는 ‘地’, 보어 앞에는 ‘得’을 쓰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鲁再萍, 「V得C与V个C的多角度比较」, 『宜春学院学报』, 第39卷(第1期), 宜春学院, 2017.)

14) 박미정, 「現代中國語의 使動表現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1, pp.139-140.

긴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쟁국면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

c. 这时刚放工, 弄得厂门口人山人海, 大家都来看热闹.

이때, 막 퇴근을 했는데 공장 입구가 인산이해를 이루었는데 모두들 구경 거리를 보러 왔다.

d. 十年动乱, 弄得人与人之间的关系经常处于势不两立的状态.

10년 간의 난리로 인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종종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e. 去年雨季, 山洪暴发, 人下不去, 骡子上不来, 弄得我们断了一个月的粮食, 油和盐. 작년 우기에 홍수와 산사태로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노새는 산으로 올라오지 못해 우리는 한 달 치 식량, 기름, 소금이 끊기게 되었다.

f. 弄得哗啦哗啦响.

사악사악 소리를 내도록 하다.¹⁵⁾

위 예문에서 ‘弄’은 정도보어와 쓰여 사람 혹은 대상을 특정한 상태로 만들거나, 특정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동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이 때 발생하는 변화는 외부의 사동자에 의한 것으로 사동자는 행위자, 행위자의 행동 혹은 사건이다.

예문 (2)-a에서 문장에 행위자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这样’을 통해 별도의 행위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这样’은 행위와 동시에 사동자로서 피사동자에 해당하는 ‘大家’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문 (2)-b에서 행위자는 ‘现身说法的人’이며 행위자의 행동인 ‘出于自愿’, ‘不要发动诉苦运动’이 사동자가 되어 피사동자인 ‘空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예문 (2)-d와 (2)-e에는 행위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각각 사동자는 ‘十年动乱’, ‘去年雨季’로 피사동자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예문 (2)-c에서는 사동자가 문장에 드러나지 있지는 않지만 동사 ‘弄’이 쓰인 것으로 보아 특정 사동자에 의해 특정한 결과가 초래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예문 (2)-f 역시 ‘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소리가 난 것’이 아닌 ‘소리가 나도록 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말뭉치 자료 중 정도보어의 형식으로 ‘弄+得+B+C’ 외에 ‘弄+的+B+C’와 ‘弄+个+C’가 있었으며 ‘弄+的+B+C’인 경우 대체로 ‘弄+得+B+C’ 형식과 유사했다.

한편 ‘V+个+C’인 경우 형식적인 측면에서 ‘V+得+C’로 바뀌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V+个+C’ 구조는 ‘V+了+个+C’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때 ‘了’의 유무는 [±실

15) 我卸下了背着的猎枪, 用它撩拨脚下的草丛, 故意弄得哗啦哗啦响, 以此给自己壮胆, 漫无目的地走着. (나는 등에 지고 있던 엽총을 내려 발아래의 풀 더미를 파헤쳤다. 나는 일부러 사악사악 소리를 내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무작정 목적지 없이 걸었다.)

현]을 나타낸다.¹⁶⁾ ‘得’은 ‘个’보다 虛化가 더욱 진행된 것으로 晚唐 시기에 이미 助詞로 허화 되었다. 하지만 조사로써 ‘个’는 아직 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V+得+C’의 사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¹⁷⁾

‘弄+个+C’ 형식은 1001건의 문장 중에 20건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弄+了+个+C’ 형식의 문장은 1건이 있었다. 다른 두 형식의 정도보어와는 달리 피사동자에 해당하는 B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다. ‘C’에 주로 쓰인 단어는 다음과 같다.

(3) 水落石出, 究竟, 水涨船高, 明白, 急, 倒栽葱, 让人笑的

현대 중국어에서 ‘个’는 양사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초보 중국어 학습자인 경우 ‘弄+个+C’ 구조를 접한 순간 ‘弄+个+명사’ 구조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弄+个+C’ 정도보어 구조는 의미 분석을 통해 ‘弄+个+명사’ 구조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弄+个+C’ 정도보어 구조의 문장이 사람, 상황, 사건 등의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다르게 ‘弄’이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획득’, ‘제작’, ‘발생’, ‘다루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弄’ 뒤에 쓰인 목적어의 예이다.

(4) 姘头, 熊掌, 钱, 鱼, 钢材, 机器人, 树, 沙土, 天主教民主党, 月饼, 菜, 棍, 器乐

‘弄’이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경우 양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획득’, ‘제작’, ‘발생’ 등과 같은 [+발생] 의미자질을 내포하는 경우 ‘弄大量钢材’, ‘弄了个天主教民主党’, ‘弄杯茶’와 같이 주로 양사가 함께 쓰였으며, ‘다루다’와 같이 동작 동사로 쓰이는 경우 ‘弄棍’, ‘弄器乐的人’과 같이 양사가 없이 쓰이는 통사적 특징이 있음을 확인했다. ‘획득’, ‘제작’, ‘발생’, ‘다루다’의 의미는 ‘弄’이 방향보어와 쓰인 경우에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각각 ‘弄’과 주로 쓰인 방향보어의 예이다.

(5) 弄来, 弄去, 弄进, 弄上, 弄出来, 弄出去, 弄进来, 弄回来, 弄回去, 弄起来

‘弄’이 방향보어와 결합할 때 목적어와 함께 쓰인 예가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목적어는 ‘舞女’, ‘黄土’, ‘猪肉’, ‘水’, ‘盐水’, ‘药’, ‘油漆’, ‘甲虫’, ‘树’와 같은 구체적인 명사였으며, 이 때 ‘弄’의 의미는 ‘획득하다’, ‘가지다’, ‘테리다’ 등과 같은 ‘동작 주체의 조종 범위 안에 사물을 들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도보어 다음으로 많이 결합하는 성분은 결과보어이다. 주요 결과보어는 다음과

16) 鲁再萍, 「‘V得C’与‘V个C’的多角度比较」, 『宜春学院学报』, 第39卷(第1期), 宜春学院, 2017, pp.87-88.

17) 鲁再萍, 「‘V得C’与‘V个C’的多角度比较」, 『宜春学院学报』, 第39卷(第1期), 宜春学院, 2017, p.92

같다.

- (6) 错, 清楚, 颠倒, 险, 急, 明白, 湿, 瞎, 糊涂, 懵, 醒, 痒, 散, 灭, 熄, 明确, 乱, 顺溜, 着, 死, 清, 齐, 痛, 成, 开, 确实, 热, 厌, 混乱, 响, 齐整, 小, 坍, 光, 驯, 晕眩, 干净, 怕, 昏, 在, 燥, 润, 折, 打, 到, 得, 退, 准确, 弯, 直, 松, 平, 模糊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된 결과보어 중 [+인지] 의미자질을 내포하는 ‘清楚’, ‘明白’, ‘明确’, ‘清’, ‘确实’, ‘准确’, ‘糊涂’, ‘模糊’는 전체 결과보어 중 69.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弄’은 결과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선행문장의 동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先记下来, 再和别的材料对照对照, 就能弄明白了(우선 메모해 두고, 다른 자료와 대조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可是, 大象的鼻子实在太长了, 药怎么也涂不进去, 倒反把他的鼻子弄痒了(그런데 코끼리의 코가 정말이지 너무 길어서 약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코끼리의 코를 간지럽히게 되었다)’에서 ‘弄’은 각각 ‘对照’, ‘涂’를 대신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 동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 (7) a. 她想打开窗子, 试了半天, 也没有弄明白怎样才能打开.

그녀는 창문을 열려고 한참을 시도했지만 어떻게 해야 열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 b. 我们应当把评选的前提弄清楚.

우리는 선정의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 c. 不要因为一些在你眼前的人小小牺牲就把胆气弄小了.

너의 눈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희생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라.

- d. 后来, 另有一位英国学者, 偶然拿到一个干枯了一百二十年的低等植物样品, 把它弄湿后居然又恢复了活力.

나중에 또 다른 영국 학자가 우연히 120년 동안 말라붙은 하등 식물 샘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을 적신 후 뜻밖에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 e. 迎面走来大勇, 他提着一根弄折了的镐把.

그는 부러진 곡괭이를 들고 용맹스럽게 다가왔다.

위 예문에서 ‘弄’은 동사를 대체하기 보다는 뒤에 결합하는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동사 본래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허화가 진행되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봉금은 ‘弄’을 사동범의동사(使動泛義動詞)¹⁸⁾로 정의하고 본 의미로부터 다소 허화하여 사동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동범의동사는 본래

18) 泛義動詞는 형식동사의 또 다른 명칭이다.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의미가 약화되어 진술의 기능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논항을 지향하는 힘이 약하고 결국 그 뒤에 따르는 성분은 더 큰 비중이 실린다.¹⁹⁾

(7)-a에서 ‘弄’은 선행하는 동사인 ‘打开’, ‘试’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문장에서 ‘弄’ 없이 ‘明白’가 동사로 쓰여도 큰 문제가 없어 ‘弄’은 문법적 표지로 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7)-b ‘弄清楚’은 정도보어 형식인 ‘弄得清楚’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여기서 ‘弄’은 특정한 대상을 명확한 상태로 만든다는 사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7)-c의 ‘弄小’, (7)-d의 ‘弄湿’, (7)-e의 ‘弄折’은 ‘작게 만들다’, ‘적시다’, ‘부러지게 하다’로 모두 외부의 힘에 의해 대상의 상태가 변화한다는 의미로 ‘弄’이 사동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弄’의 허화 과정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X+弄’ 구조로 이루어진 이음절 단어이다. 말뭉치 자료에서 다음의 ‘X+弄’ 구조의 단어가 확인되었다.

- (8) 伺弄, 理弄, 矜弄, 捣弄, 打弄, 拉弄, 插弄, 搔弄, 捏弄, 笑弄, 挤弄, 簸弄, 和弄, 讨弄, 哄弄, 乱弄, 抓弄, 扒弄

위 이음절 단어인 경우 ‘弄’ 앞에 위치한 ‘X’가 글자의 중심의미이며 통사적으로는 뒤에 목적어를 이끌거나 ‘X+弄’ 뒤에 동태조사인 ‘着’가 함께 쓰여 ‘X+弄+着+목적어’ 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능보어는 긍정형보다 부정형이 더 자주 쓰였으며 주로 쓰인 가능보어는 아래와 같다.

- (9) 弄不明白, 弄不清, 弄不好, 弄不到, 弄不清, 弄不懂, 弄不具体, 弄得来, 弄不来, 弄不回去, 弄得到, 弄得成, 弄不回来, 弄不清爽, 弄不出

가능보어가 결과보어와 방향보어 앞에 구조조사 ‘得’ 혹은 부정부사 ‘不’를 첨가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과보어와 방향보어와 동일하며 가능여부에 대한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말뭉치 자료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었는데 ‘清早弄我醒来的, 是院子里的唰唰声’²⁰⁾이 그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清早弄我醒来的’ 중

19) 이봉금, 「현대중국어 범의동사 구조의 사동용법 연구」, 『중국어학』, 제81집, 대한중국어학회, 2022, p.100.

20) 今天, 清早弄我醒来的, 是院子里的唰唰声, 我忍无可忍, 全身窒息。(오늘 이른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정원의 쇠소리가 소리가였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혔다.)

‘弄我醒来’는 ‘술어+목적어+술어+방향보어’의 구조로 자료 분석 기준에 따르면 ‘弄’ 뒤에 목적어가 쓰였기에 ‘동목’ 구조에 속할 수 있지만 목적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의미에 있어서도 ‘획득’, ‘발생’, ‘제작’, ‘다루다’와는 거리가 멀어 해당 형식으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오히려 ‘弄’이 겸어동사로 쓰인 겸어문으로 보거나 혹은 ‘弄’ 뒤에 정도보어 표지인 ‘得’가 생략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의미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弄’이 겸어동사로 쓰여 해당 구절이 겸어문에 속하든지 혹은 정도보어와 결합하여 쓰였든지 간에 ‘弄’ 자체에 이미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이다.

3. ‘弄’의 원형의미와 의미 확장

1) ‘弄’의 원형의미

‘弄’의 갑골문 자형이나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李孝定에 따르면 卜辭에서 ‘弄’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殷契佚存·九六一』 ‘佳其戔弄’에서 ‘弄’은 나라 이름이며 『殷契佚存·九七六』 ‘其弄’에서 ‘弄’은 동사라고 밝혔다.²¹⁾ 또한 『甲骨文字典』에서는 唐蘭의 풀이를 따라 ‘弄’이 ‘동굴에서 양 손으로 옥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했으며 복사에서 나라 이름으로 쓰였다고 풀이하고 있다.²²⁾ 商承祚는 금문에서 ‘弄’이 세 차례 확인되며 모두 ‘奉’의 본자라고 밝혔고, 당란은 ‘弄’은 초나라 말로 진귀한 보물이라고 설명했다.²³⁾

‘弄’에 대한 공식적인 풀이는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설문』에서는 ‘弄’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두 손이 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弄, 玩也. 从升持玉.)’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설문』 이전에 ‘弄’의 쓰임은 어떠했는지 周代와 春秋戰國 시기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²⁴⁾

(10) a. 『時經』: 載衣之裼, 載弄之瓦.

포대기 두르고 도기로 만든 방직 도구를 가지고 놀다.

b. 『時經』: 載衣之裳, 載弄之璋.

21) 李孝定, 『甲骨文字集釋(第三)』,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70, pp.789-790.

22)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p.238.

23) 李圃 主編, 『古文辭林(第三冊)』, 上海教育出版社, 1999, p.195.

24) 문헌자료는 語料庫在 線 古 代 漢 語 자료를 참고함. (<http://corpus.zhonghuayuwen.org/index.aspx> [2022.12.05.])

옷을 입고 옥을 가지고 놀다.

- c. 『兵法』: 卓侍妾怀抱中子皆封侯, 弄以金紫.

동탁의 첩이 낳은 아이까지 후인으로 봉해졌고, 아이는 후인과 보라색 리본을 가지고 놀았다.

- d. 『國語』: 夷吾之少也, 不好弄戏, 不过所复, 怒不及色, 及其长也弗改.

이오는 어렸을 때,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보복이 지나치지 않았고 노여워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성장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 e. 『兵法』: 世世作奸, 侵盗县官, 进退求便, 委曲弄文, 以危其君; 是谓国奸.

대대로 악을 행하고 천자의 권위를 갉아먹으며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문장을 왜곡해 군주를 위협한 것이 바로 나라의 간적이다.

- f. 『兵法』: 弄刀者伤手, 打跳者伤足.

칼을 다루는 자는 손을 상하게 하고 뛰는 자는 발을 다치게 된다.

예문 중 (10)-a의 ‘載弄之瓦’, (10)-b의 ‘載弄之璋’, (10)-c의 ‘弄以金紫’의 ‘弄’은 ‘가지고 놀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10)-d의 ‘不好弄戏’에서 ‘弄戏’는 동목구조로 ‘놀이를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때 ‘弄’은 술어로 ‘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를 통해 ‘弄’의 의미가 고대에 이미 일반화되면서 허화 과정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e ‘弄文’은 ‘문장을 가지고 놀다’ 혹은 ‘문장을 다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때 ‘弄’은 그 행위가 부정적이다. 반면 (10)-f ‘弄刀’에서 ‘弄’은 (10)-e의 예와는 달리 긍정 및 부정의 색채를 지니지 않는다.

‘弄’은 갑골문과 금문에서 ‘나라 이름’, ‘진귀한 보물’, ‘옥을 지키다’, ‘받들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점차 ‘가지고 놀다’, ‘하다’, ‘다루다’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弄’이 문장에서 쓰인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손을 이용하는 동작이 주를 이루며 긍정적,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설문』의 자형과 자형 풀이를 기준으로 삼고 ‘弄’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 인지적 관점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弄’의 의미 확장

필모어는 단어와 연상되는 구조화된 지식 목록의 특징을 밝히고 이런 지식 체계의 특성이 의미론 모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프레임 의미론을 개발했다.²⁵⁾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백과사전적이라고 전제한다. 단어의 의미

25) Vyvyan Evans·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譯,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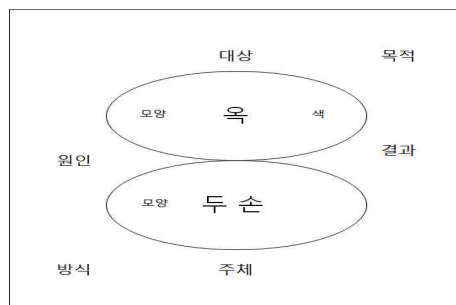
를 사전적 지식과 백과사전 지식으로 이분했을 때 전자는 단어의 핵심의미가 단어의 정의에 담겨 있는 정보이지만 백과사전 지식은 비언어적 지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bachelor(노총각)’의 사전적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 [+남성], [+성인], [-결혼]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반면 백과사전적 지식에는 사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성적 극복’, ‘더러운 세탁물’, ‘냄새나는 방’, ‘나이가 많음’, ‘성격 결함’ 등이 포함된다.

“프레임 의미론에서는 단어가 백과사전적 지식인 프레임을 연상시키고, 그런 프레임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가 정의되고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단어가 연상시킨 프레임의 특정한 요소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단어의 의미 구조가 밝혀진다는 것이 프레임 이론의 입장이다.”²⁶⁾

프레임이 외부세계를 통해 체득한 우리의 경험 혹은 지식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라면 한자는 인간이 보고 느낀 바를 1차원적인 방식으로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그림은 『설문』의 자형 풀이를 사전적 의미로 삼고 ‘弄’의 백과사전 지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 ‘弄’의 프레임이다.

<그림2> ‘弄’의 프레임



인간은 사물을 마주할 때 개인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개념이든 간에 각각 개인에게 잠재된 정보 중에 외부 자극과 가장 적합하고 현저한 정보와 결합하여 그 개념을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유방식이 환유이다. 환유는 인접성을 근거로 하나의 매체에서 또 다른 매체로 사고가 이동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근접한 성질일 수도 있고,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정신적 인접성일 수도 있다.

위 프레임에서 ‘두 손’과 ‘욕’은 외부 자극체로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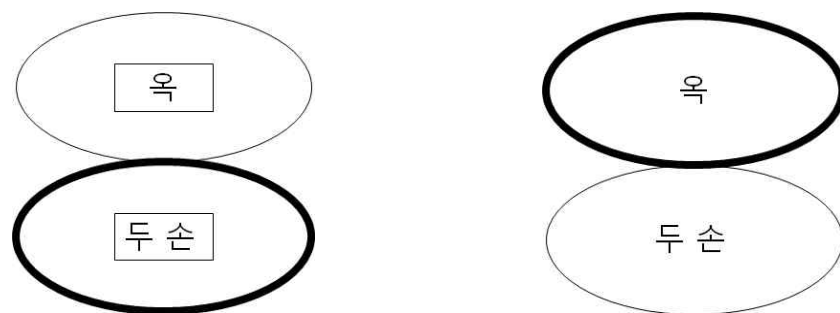
26)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p.277.

또 다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두 손으로 받쳐진 옥’의 형상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물리적 인접성이 가장 큰 ‘사물’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귀한 보물인 ‘옥’이 가장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받치고 있는 ‘손’이 눈에 띄었을 수도 있다. 혹은 옥의 색이나 손의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 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손’은 사물을 다루는 주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동작’을 연상할 수 있으며, ‘옥’은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옥에 가해지는 동작의 목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동작의 주체, 동작의 대상, 동작 발생원인, 동작의 결과, 동작 방식 등 사고를 넓혀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다.

프레임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윤곽부여 개념을 프레임 이론에 도입해야 한다. “윤곽부여란 주어진 하나의 동일한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화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 능력의 해석 또는 관습적 영상의 한 유형이다. 언어 표현의 의미 구조는 그 표현이 연상시키는 프레임이라는 바탕의 특정 부분에 윤곽이 부여된 전체 형상과 동일하게 된다. 즉, 프레임 내에 있는 특정 요소가 초점을 받거나 윤곽부여가 될 수 있다.”²⁷⁾

다음은 ‘弄’의 자형 구성 요소인 ‘옥’과 ‘두 손’에 각각 윤곽을 부여한 그림이다.

<그림3> ‘弄’에 대한 윤곽부여



<그림3>의 좌측 그림은 ‘두 손’에 윤곽이 부여되었고, 우측 그림은 ‘옥’에 윤곽이 부여된 것으로 초점이 각각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에 맞춰져 있다. 글자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두 손’을 ‘동작의 주체’로 ‘옥’을 ‘대상’으로 개념화 하여 의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작의 주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동작이 그 중심 의미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동작은 ‘대상’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으로 ‘만지다’라는 1차적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그 목적과 결합함에 따라 ‘받들다’, ‘다루다’와 같이 2차적 의미로 확장될 수

27)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p.283.

있다. ‘받들다’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동작으로 긍정적 색채를 지니지만 동작 ‘다루다’는 긍정과 부정적인 색채 모두를 가질 수 있으며 동작 주체의 의지에 따라 사물과 상황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弄’은 ‘弄刀的人’, ‘弄棒’, ‘弄船’과 같이 구체적인 無情物과 함께 쓰이면 ‘조작하다’, ‘조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弄语言为职业的人’과 같이 추상적인 명사와 쓰이면 ‘특정 분야에 몸을 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목적어로 사람이 쓰이는 경우 그 의미는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弄人儿’에서 ‘弄’은 ‘속이다’, ‘기만하다’, ‘희롱하다’이며, ‘故意戳弄他一下’에서 ‘弄’은 ‘해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이다. 주체의 의지가 강하게 내포된 동사 ‘다루다’가 의지가 있는 대상과 결합하면서 의미자질 [+의지]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루다’는 또 다시 목적, 결과와 결합함으로써 3차적 의미인 ‘가지고 놀다’와 ‘마련하다’, ‘만들다’, ‘생기다’와 같이 ‘획득’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가지고 놀다’는 ‘즐거움’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획득’은 손의 접촉을 통한 그 결과물이다. ‘弄’이 ‘획득’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통사적 특징은 ‘弄点鱼’, ‘弄大量钢材’, ‘弄一台这样的机器人’, ‘弄一棵树’와 같이 양사가 함께 쓰인다는 것이다. 상술한 의미 변화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물론 ‘弄’의 의미 파생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사고의 변화가 의미 생성 및 변화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윤곽이 ‘옥’에 부여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곽이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의 특징은 ‘대상’이 바로 ‘무정물’이라는 것이다. 무정물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다. ‘弄’에서 ‘옥’은 의지와 관계없이 받쳐져 있으며, 다뤄지고, 조작되고,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진다. ‘대상’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弄’은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동의 의미는 ‘弄’이 정도보어, 결과보어와 결합하거나 사람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두드러졌다.

대상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 내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결과를 맞이하거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弄’의 의미적 성질로 인해 ‘弄’은 정도보어, 결과보어와 함께 쓰여 상태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1) a. 这样也会弄得大家发恐慌, 把运动闹糟.

이렇게 하면 모두를 당황시키고 일을 망칠 것이다.

- b. 十年动乱, 弄得人与人之间的关系经常处于势不两立的状态.

10년 간의 난리로 인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종종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c. 我们应当把评选的前提弄清楚.

우리는 선정의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d. 迎面走来大勇, 他提着一根弄折了的镐把.

그는 부러진 곡괭이를 들고 용맹스럽게 다가왔다.

위와 같이 ‘弄’이 정도보어, 결과보어와 결합하는 경우 사동자에 의해 피사동자를 특정한 상태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황을 초래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清早弄我醒来的’에서 ‘弄’이 문장에서 사동의 의미로 ‘我’를 잠에서 깨도록 만드는 것은 ‘弄’이 프레임에서 윤곽부여를 통해 ‘대상’의 입장에서 해석 되면서 파생된 의미라고 생각한다.

4. 나오면서

‘弄’은 형식동사(dummy verb) 중 하나로 한국어의 ‘하다’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弄’은 구체적이지 않은 동작을 지시하는 ‘하다’라는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중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혼동을 일으킨다. 본고에서 말문치 자료 분석 결과 ‘弄’은 동사로 쓰여 뒤에 보어를 이끄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弄’이 정도보어와 결합하는 경우 정도보어 표지로 ‘得’, ‘的’, ‘个’가 사용되며, 뒤에 ‘주어+술어’ 혹은 ‘술어’가 단독으로 쓰여 특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정도보어 형식에서 ‘弄’은 뒤에 따르는 상황을 야기하는 사동의 성질을 가진다. 결과보어와 결합할 때 ‘弄’은 선행 문장의 동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쓰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로 작용하는데, 이때 ‘弄’에는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弄’은 목적어와 결합할 때 ‘획득’, ‘제작’, ‘발생’, ‘다루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 경우 목적어 대다수가 양사를 수반한다.

‘弄’의 의미 변화를 프레임 의미론 관점에서 해석하면 ‘弄’은 자형을 구성하는 ‘두손’과 ‘옥’ 중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변화 과정이 발생한다. ‘손’에 윤곽이 부여되는 경우 동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만지다’, ‘다루다’, ‘조작하다’, ‘숙이다’로 의미가 확장되며, 동작의 목적과 결과에 따라 ‘가지고 놀다’, ‘획득하다’와 같은 의미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손’이 아닌 ‘옥’에 윤곽이 부여된 경우에

는 ‘옥’이 무정물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다뤄지는 대상’, ‘귀속 대상’, ‘조작 대상’이 되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사물의 특징이 반영되어 사동의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어의 의미가 단어 자체의 의미범주를 넘어 결합하는 성분에 따라 적용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어휘 교수법에서 결합 성분에 따른 의미항의 변화와 그에 따른 통사적 특징도 함께 다룬다면 효과적인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 본고의 분석 대상인 말뭉치 자료가 학습 자료로도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한자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자형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의미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北京大學中文系,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譯, 『현대중국어의 이해(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9.
 胡裕樹·範 曉 主編, 김현철·김선아 외 共譯, 『현대 중국어 동사연구』, 學古房, 2004.
 李 圃 主編,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1999.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70.
 Vyvyan Evans·Melanie Green, 임지룡·김동환 譯,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논문>

- 김선아, 「現代中國語 形式動詞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박미정, 「現代中國語의 使動表現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1.
 이봉금, 「현대중국어 범의동사 구조의 사동용법 연구」, 『중국어학』, 제81집, 대한중국학회, 2022.
 조은경, 「現代 中國語 ‘搞’類 動詞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홍연옥, 「중국어 대동사 ‘弄’의 의미기능 연구 - 대동사 ‘搞’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68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7.
 刁晏斌, 「虚义动词论」, 南开大学 博士论文, 2004.
 何和平, 「浅析结构助词‘的’与‘地’、‘得’的混用」,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第34卷(第9期), 湖北广

播电视大学, 2014.

江胜利, 「能否把结构助词 ‘的’, ‘地’, ‘得’ 看成一个词」, 『黄山学院学报』, 第10卷(第6期), 黄山学院, 2008.

孔 雪, 「泛义动词‘弄’的教学策略」, 『文化产业』, 山西出版集团, 第11期, 2021.

鲁再萍, 「‘V得C’与‘V个C’的多角度比较」, 『宜春学院学报』, 第39卷(第1期), 宜春学院, 2017.

娜布其, 「现代汉语结构助词 ‘的’, ‘地’, ‘得’用法研究」, 『呼伦贝尔学院学报』, 第29卷(第2期), 呼伦贝尔学院, 2021.

滕 飞, 「泛义动词 ‘弄’的多角度考察」, 吉林省 延边朝鲜族自治州 延边大学 硕士论文, 2009.

田 野, 「‘的’, ‘地’, ‘得’的合用与分用」,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24卷(第3期), 盐城师范学院, 2004.

颜欣欣, 「对外汉语教学中的虚义动词教学研究」, 吉林大學 硕士学位论文, 2014.

鄭 輝, 「현대중국어 補語의 ‘程度意味’ 범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17.

褚 艳, 「周口方言中泛义动词‘弄’的用法分析」, 『周口师范学院学报』, 第32卷(第3期), 周口师范学院, 2015.

<기타자료>

『语料库在线』, <https://www.chinesetest.cn/godownload.do> [2022.10.30.]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弄, 泛义动词, 义项, 使动, 框架语义理论				
Key Words	영문	Nòng(弄), Dummy verb, Sense, Causative, Frame semantics				
<div>Semantic Analysis of ‘弄’ through Frame Semantic Approach</div> <div>Lee Ha-Yeong</div> <p>The word “弄”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ummy verbs in modern Chinese and corresponds to the Korean word “하다(do)”. However, “弄” causes considerable confusion to Chinese learner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do” which indicates a non-specific a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pus data in this paper, “弄” was used as a verb and was followed by a complement in most cases.</p> <p>When “弄” is combined with a degree complement and resultative complement, “弄” has the property of a causative meaning. In addition, when “弄” is combined with an object, it has the same meaning as “acquisition”, “production”, “occurrence” and “handle”. When “弄” stands for “acquisition”, “production” or “occurrence” most of its objects are accompanied by a measure word.</p> <p>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etter shape, “弄” appears to be holding jade with two hands. “弄” has expanded its meaning to “touch”, “handle”, “manipulate” and “deceive” as the focus goes on the motion and profiling applies to “hand” from the composition of the letter shape. And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the result of the motion, it has changed to mean “to play with” or “to acquire”.</p> <p>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part of “jade” rather than “hand” of the letter gets illuminated, it has implied the meaning of “an object to be handled”, “an object to belong” or “an object to be manipu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n inanimate object, and is bound to undergo changes by external forces. By reflecting this feature, therefore, “弄” potentially implies causative meaning.</p>						
저 자	이하영 / 李荷映 / Lee Ha-Yeo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10.	심 사 일	2023.03.12.	게재확정일	2023.03.20.